

다호리유적 목관묘 시기의 묘제

신 용 민*

I. 머리말

II. 매장주체부 이해

1. 진한지역 목관묘 유적의 매장주체부
2. 변한지역 목관묘 유적의 매장주체부

III. 유물부장 분석

1. 진한지역 목관묘 유적의 유물부장
2. 변한지역 목관묘 유적의 유물부장

IV. 맺음말

참고 문헌

*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I. 머리말

고고학이란 학문은 과거 인류의 발자취 중에서 물질자료를 통해서 연구하는 분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고고학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로 취급되는 것이 고대인의 喪葬制度 속에서 창출해낸 무덤이다. 그리고 무덤이라는 물질적, 유형적 자료에서 고대인의 생활, 사회, 의식 등 정신적·무형적 상황을 이해하고 복원해 내는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상장제도는 과거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의식과 행위에 대한 규율적, 보편적으로 형성된 습관적인 제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한 연구는 당시의 生死觀을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물질로 통해 본 일정한 계통성과 사회질서, 발전단계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물로 활용되고 있다.

墓制는 상장제도 속에서 사람을 매장하는 행위에서 이루어진 결과적 물질자료에 대한 연구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피장자가 안치되는 공간적 배치와 피장자를 위한 유물 부장의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분석의 대상으로 규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매장주체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제 속성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피장자를 위한 奉獻的 의미를 지닌 유물의 부장행위의 순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창원 다호리유적의 목관묘에서는 우리나라의 삼한시대 특히 진·변한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출토되었고 이를 통해 이제까지 이해되지 못하였던 당시의 여러 정황 등을 조금씩 밝힐 수 있었다. 삼한시대는 이미 정치체적 집단이 체계화되어 신분의 분화과정이 이루어져 있음이 고대문헌 자료에서도 밝혀져 있고 고고학적인 조사를 통하여 이 시대의 무덤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음이 연구되어 있다. 이번 학술회의는 이러한 연구 결과물과 최근 이와 관련된 유적의 자료를 총정리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의논하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자에게 주어진 주제에 따라 창원 다호리유적에서 조사된 목관묘의 묘제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하여 보기로 한다.

II. 매장주체부 이해

본고에서는 창원 다호리유적 목관묘와 동일한 시기에 조영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진·변한지역의 목관묘를 한자리에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삼한시대의 목관묘라는 묘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현재까지 발굴조사되어 정식보고서가 간행된 것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최근 조사되었지만 미공개된 자료는 제외하였다.

그리고 보고서 내용에서 조사과정 연구자 간의 시각차가 있거나 미보고된 내용이 있을 경우와 본 연구자의 정확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한 자의적 해석이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을 비롯한 관련 연구자의 목관묘라는 묘제에 대한 보다 폭넓고 다각도적인 인식의 재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가운데 유구의 성격이 분명한 것에 대해 매장주체부의 제 속성에 따라 분류하여 각 지역별로 표를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유구의 장축방향은 기본적으로 동-서축을 이루고 있고 각 고분군과 무덤의 입지상태는 기본적으로 평지나 평지성 구릉에 입지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무덤 조영의 입체적인 용적 산출을 위한 길이, 너비, 깊이에 대한 수치적 자료를 산출하였다. 이는 무덤 조영에 있어 노동력의 多少에 대한 단순한 의미 부여와 함께 공간적 개념의 변화라는 양적인 의미와 유물부장이란 질적인 의미의 상관관계 분석이라는 2차적 자료의 검토에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는 매장주체부의 지하구조에 대한 세부적인 공간구조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이는 묘광을 굴착하고 관의 안치와 유물 부장이라는 장속 행위를 위한 행위 이전 또는 이후의 결과로 인해 잔존하는 매장주체부의 고고학적인 흔적을 말한다. 여기서는 二段堀壙의 유무 등이 구분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 그런데, 이번 분석에서 조사자간의 토층 분석에서 각각의 이견이 가장 첨예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해당하여 분석에서 부득이 제외하게 되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별도의 연구와 논의가 요망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목관의 형태에 따른 분류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지질적인 상황으로 인해 관재의 존재가 극히 불량하여 매장 당시의 상황을 복원하는 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다. 이로 인해 부득이 토층의 잔존상태를 통하여 추측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토층의 퇴적상태와 해석에 대하여는 발굴조사자마다 견해차가 상당하여 각 조사보고서 간의 혼선과 이해도에 따라 서술방식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분류에서는 상당한 신중을 기해야 하며 주관적인 견해가 존재함을 인정하여 금번 대상에서 부득이하게 제외하였음을 밝혀둔다.

1. 진한지역¹⁾ 목관묘 유적의 매장주체부

진한지역에서 발굴조사된 삼한시대 목관묘 유적 중 경주 조양동유적, 경주 사라리유적, 경주 황성동유적, 대구 팔달동유적, 경산 임당동유적, 경산 신대리유적, 성주 예산리유적, 영천 용천리유적 등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지역에서 발굴조사된 목관묘 353기의 매장주체부 즉, 길이, 너비, 깊이와 용적에 대한 분석치를 정리하였고 이를 다시 깊이에 대한 도수분포도를 표로 정리한 것이 ‘표 1. 진한지역 목관묘 묘광 깊이 도수분포도’이다. <표 1>을 근거로 하면 깊이 205~214cm 이상의 목관묘를 ‘가’군으로 구분 가능하고, 85~95cm 이상의 목관묘는 ‘나’군으로 구분하고, 그 이하의 것을 ‘다’군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깊이 85~95cm 이상 되는 것을 부장유물과 함께 정리한 것이 ‘표 2. 진한지역 목관묘 속성표’이다. <표 2>에서 깊이 85cm 이상의 목관묘는 모두 47기가 해당되며 전체 대상 목관묘에서 13%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가’군에 속하는 것은 불과 2기에 불과할 정도로 그 대상은 극히 제한적으로 줄어든다.

다음은 진한지역 목관묘의 묘광 용적률을 분석하여 보았다. 대상유구는 수치가 부정확한 일부 유구를 제외하고 323기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이를 표로 정리한 것이 ‘표 3. 진한지역 목관묘 용적률 도수분포도’이다. 이를 통해 보면 먼저 용적률 6.0m³ 이상을 별도의 군으로 구분 가능하고 이를 ‘A’군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다시 4.35~5.65m³에 해당되는 것을 ‘B’군으로 구분 가능하다. 나머지 그 이하를 ‘C’군으로 설정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A’군과 ‘B’군에 해당되는 목관묘의 매장주체부와 부장유물 속성을 별도로 하여 ‘표 4. 진한지역 목관묘 속성표(용적률 4.35m³ 이상)’으로 작성하였다. 여기서 ‘B’군 이상인 4.35m³ 이상의 목관묘는 모두 16기로 4.5%에 불과하다. 이들의 평균 깊이는 1.45m이고 용적률 역시 6.50m³으로 월등함을 알 수 있다.

1) 본고에서 말하는 진한지역은 지금의 행정구역상 대구·경북지역에 해당하는 곳으로 대구, 경주 지역이 중심을 이룬다.

표 1. 진한지역 목관묘 묘광깊이 도수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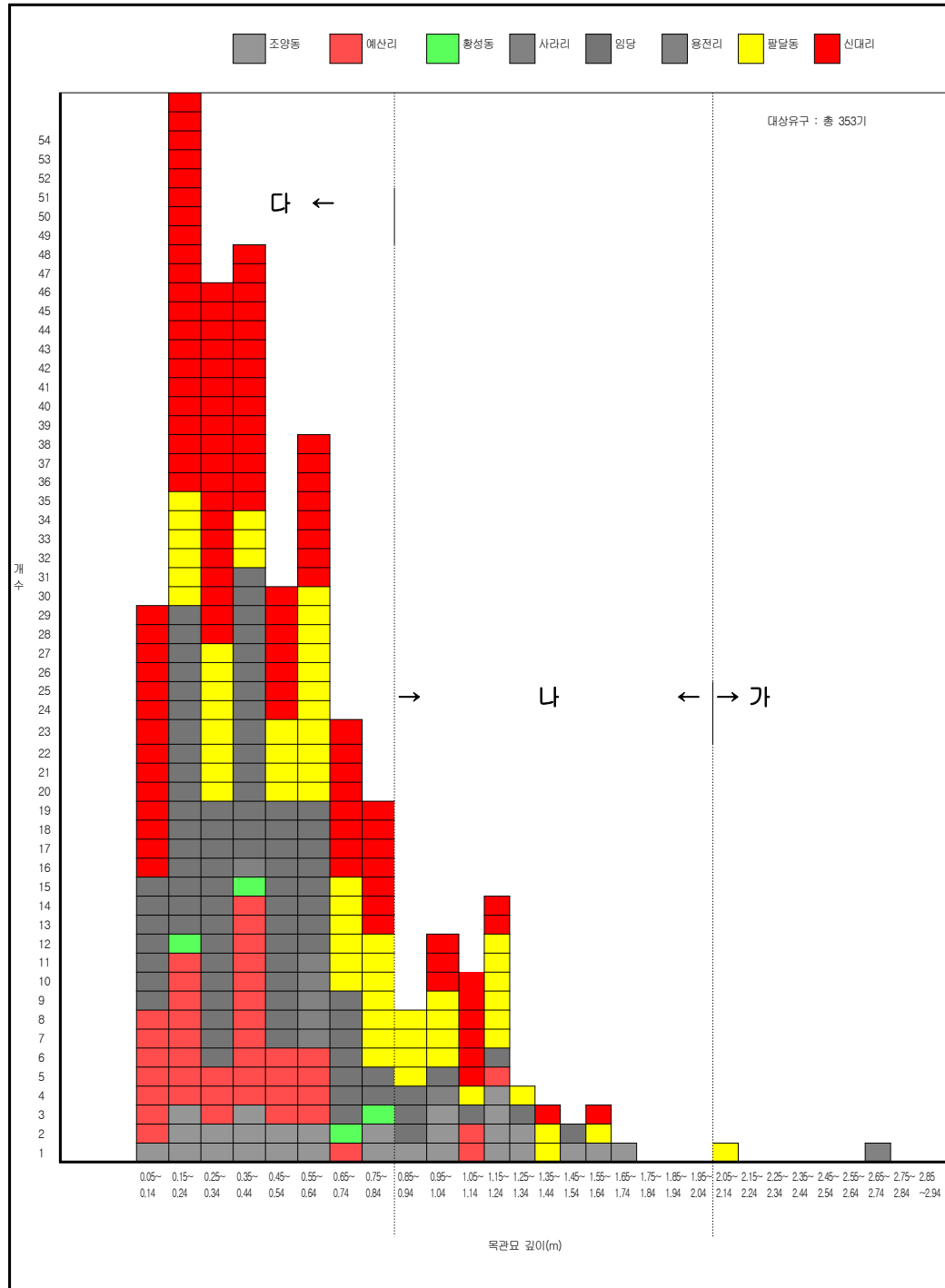


표 2. 진한지역 목관묘 속성표(묘광깊이 0.85m이상)

※ 용적율 4.35㎡ 이상

유적	유구 번호	길이	너비	깊이	용적율 (㎡)	토기류	철기류	청동기/ 은제류	생활기류/ 장신구류	비고
대구 팔달동 29.5% (21/71)	28	2.3	0.84	1.24	2.40	주머니호, 파수부호 (무), 장경호(마), 유개호, 방추차5	판상철부1			
	35	2.8	1.45	1.15	4.67	파수부호(흑마), 단경호1, 옹(무), 도, 어망추1				적석목관묘
	45	2.98	1.34	1.55	6.09	주머니호1, 조우파 (흑마)2, 장경호 (흑마)4, 토기편(무)3	철모1, 판상철부1, 주조철부1, 철착1	검파두식세형동검1	지석2	적석목관묘, 통나무관
	50	2.99	1.25	1.36	5.08	파수부호1, 옹1, 도1 (주구내출토), 기대1	철사, 도자, 철기편5		지석1, 경식1	주구
	56	2.36	1.22	1.18	3.40		철사, 철기편1			적석목관묘, 통나무관
	57	2.5	1	1	2.50	조우파(흑마)1, 장경호(흑마)1, 도2	철검1, 철모1, 판상 철부1, 철착1, 철사1	창동제검파두식1		
	65	3.28	1.76	1.39	8.02	주머니호1				이단굴광
	74	2.55	1.25	0.96	3.06		주조철부2, 단조철부1, 철검1			
	77	2.6	1.05	1	2.73	장경호(무)1, 옹(철)1, 도1	철검1, 주조철부1			적석목관묘, 요경문2
	83	2.4	1	0.9	2.16	옹3, 무1				2단굴광, 통나무관
	84	2.82	0.99	1	2.79					
	85	2.8	1.6	1.2	5.38	주머니호1, 조우파1				이단굴광
	86	2.4	0.8	1.3	2.50	옹1	주조철부2			적석목관묘
	88	3.2	1.2	1.15	4.42	유개옹(흑-무)2	주조철부2			적석목관묘
	90	2.7	0.9	1.01	2.45	파수부호2(1철-무), 옹(철)1, 도2, 완1, 개2	철검1, 철모1, 판상철부1, 불명철기2	동모1, 동파1		적석목관묘, 통나무관
	99	3	1.1	0.9	2.97	도1	철모1	창동제검파두식1		
	100	3.6	1.45	2.05	10.70	조우파1	철검2, 철모2, 판상철부1, 단조철부1, 철착1	검파두식세형동검1, 동모2		통나무관, 삼단굴광
	101	2	1.2	0.85	2.04	주머니호1, 단경호1	철검1, 철사, 파비, 도자, 환형철기1	창동제검파두식1, 칼집부속구3, 삼각주동기1, 동환1, 쌍두관상동기1		
	102	3.1	1.21	0.88	3.30	양이부호1, 단경호1, 개1	판상철부1, 단조철부1, 철검1, 도자1			2단굴광
	105	2.47	1.11	1.2	3.29	단경호1	철사1			
	107	2.55	1.27	1.06	3.43	조우파1	철검1, 단조철부1, 철검1, 도자1			통나무관, 요경
경주 조양동 24.5% (13/53)	5	2.05	0.8	1.3	2.13	주머니호1, 조우파 (흑마)3, 소옹1, 도(대각편)1	철검1, 환두도, 철모2, 철파1, 판상철부1, 주조철부2, 철검1	소문경1, 동탁2		삼단묘광/ 하단묘광의구조
	11	2.42	1.21	1.69	4.95	주머니호1, 파수부호1	철모2, 판상철부1, 주조철부5, 단조철부 1, 철검1, 철착1, 철사1, 관수문철기편5			
	18	2.7	1.15	1.01	3.14	단경호1	철검1		경식1	
	23	2.65	1.18	1.02	3.19	주머니호1, 조우파1, 단경호1	단조철부1, 철검1		경식1	
	28	2.76	1.3	1.55	5.56	주머니호1, 단경호1, 옹(무)1	철검1, 주조철부1, 단조철부1, 철검1, 철착1, 철사3			
	31	2.95	1.15	1.01	3.43	주머니호1, 조우파2, 단경호1	단조철부1, 철검1		경식1	

유적	유구 번호	길이	너비	깊이	용적율 (%)	토기류	철기류	청동기/ 은제류	생활기류/ 장신구류	비고
경주 조양동24.5% (13/53)	35	2.7	1.22	0.9	296	조우패2	단조철부1, 철검1			
	36	2.51	1.22	1.15	352	주머니호1, 조우패2, 단경호1, 방추채1	단조철부1, 철검1			요쟁
	38	2.58	1.28	1.5	495	주머니호1, 장경호(흑마)2, 단경호2, 완3	철검1, 판상철부8, 주조철부 2, 단조철부3, 철검1, 철촉1, 철사, 도자3, 이형철기2	검파두식1, 동경(한경시, 동원)	경식1	요쟁
	52	2.6	0.94	1.17	286	주머니호1, 단경호1	철모1, 철촉1, 판상철부2, 단조철부2, 철검2, 철촉1, 철사1			
	55	2.9	1.42	1.16	478	대부옹1	철모1, 철촉3, 단조철부1, 철검1, 철촉1, 철사1		경식1	
	58	2.35	0.96	1.3	282	도1, 구연부편1	철모1, 단조철부1, 철검1		방추채1, 지석1	
	60	4.09	1.7	1.15	800	주머니호1, 양이부장동호1, 단경호1, 도1, 구연부편1	철검1, 철모1	청동교구1, 마형대구1, 동원편2	경식1	목곽묘
성주 예산리7.31% (3/41)	3	2.62	0.84	1.1	242	주머니호1, 파수부호2(2장- 무), 장경호2(1장-흑마), 호판3, 유가호1, 도5(2장-무3장-흑마)				
	6	2.4	0.95	1.05	239	주머니호1, 장동호1, 단경호1, 구연부편2	철모1, 주조철부2, 판상동구1, 철제지환1	검파두식1, 동경(한경시, 동원)	철기혼	
	31	2.6	1.5	1.15	449	주머니호2, 조우패1, 장경호2(1-흑마), 단경호2, 소호1, 완2, 무문토기구연편1	철모7, 철촉1, 철촉7, 주조철부6, 철촉1, 철사2, 마비1, 축소모형동구1, 불명철기1	철초철검1, 검파두식1, 청동제개공모2, 호형대구1	철선자1, 원통형철기2, 철도6, 불명철기5, 궁형철기1	요쟁
경산 임당9.52% (8/84)	A-I-114	2.6	1.26	1.5	491	주머니호1, 단경호2	철모1, 물미1, 단조철부1		철기1, 지석2	
	A-I-121	2.25	0.77	1.22	211	주머니호1, 단경호1, 옹1	철초철검2, 철모2, 물미1, 단조철부3, 철검1, 쇠스럼1		철선자1, 오수전1, 지석1	
	A-I-135	2.62	1.01	1	265	주머니호1, 조우패1, 파수부호1, 단경호2, 옹1, 대부원1, 기대1, 호저부편2	철검1, 철모1, 물미1, 철촉1, 단조철부2, 철사1	원형동기1	철선자1	
	E-34	2.35	0.9	0.9	190	주머니호2, 단경호1				
	E-91	2.5	0.95	0.85	202	주머니호1, 조우패1, 옹1	판상철부1, 단조철부1, 철검1			
	E-94	2.35	0.85	1.05	210	주머니호2, 소옹(무)1			경식1	
	E-122	2.4	0.9	0.85	184	주머니호1, 조우패1, 완1	단조철부1			
	G-14	2.27	0.9	1.3	266	주머니호1, 편구호1, 장단옹(무)1	철모1, 판상철부1, 단조철부1			
영천 용전리100% (1/1)	1	3.25	1.65	2.65	1421	주머니호7, 조우패1, 파수부호2, 장경호2, 소옹1, 도(편)2, 구연부편2, 파수편1, 원관형토제품6, 토기편1	철검1, 원두도1, 철모1, 철제검파두식1, 철령1, 주조철부3, 단조철부24, 철검1, 닳형철기2	청동제검파두식1, 반부선금구1, 동패1, 동파초1, 동경1, 동탁3, 동판3, 청동방추채1, 청동방추채부속 구1, 청동원형주름편1, 청동원관형장식1, 불명도 금장동기1, 청동장식5, 청동제교구1, 은제관검 장식, 은제관검장식편1	경식2 (1장, 요쟁내출토)	요쟁
경주 사리리14.2% (1/7)	130	3.37	2.3	1	7.75		검파부철검1, 철도4, 철모2, 철촉24, 제검3, 판상철부70, 단조철부4, 철검3, 꺾수형철기1, U자형철기1, 철복1, 불명철기2	원조검파두식세형동검2, 동경4, 동판9, 8자형동기2, 교구1, 청동원1, 청동원4, 청동소원17, 호형대구2, 원형유문동기1	경식1	요쟁
평균		2.68	1.18	1.19	398	※ 조우패 : 조합식유각형파수부호, 무 : 무문토기, 흑마 : 흑색마연				

표 3. 진한지역 목관묘 용적률 도수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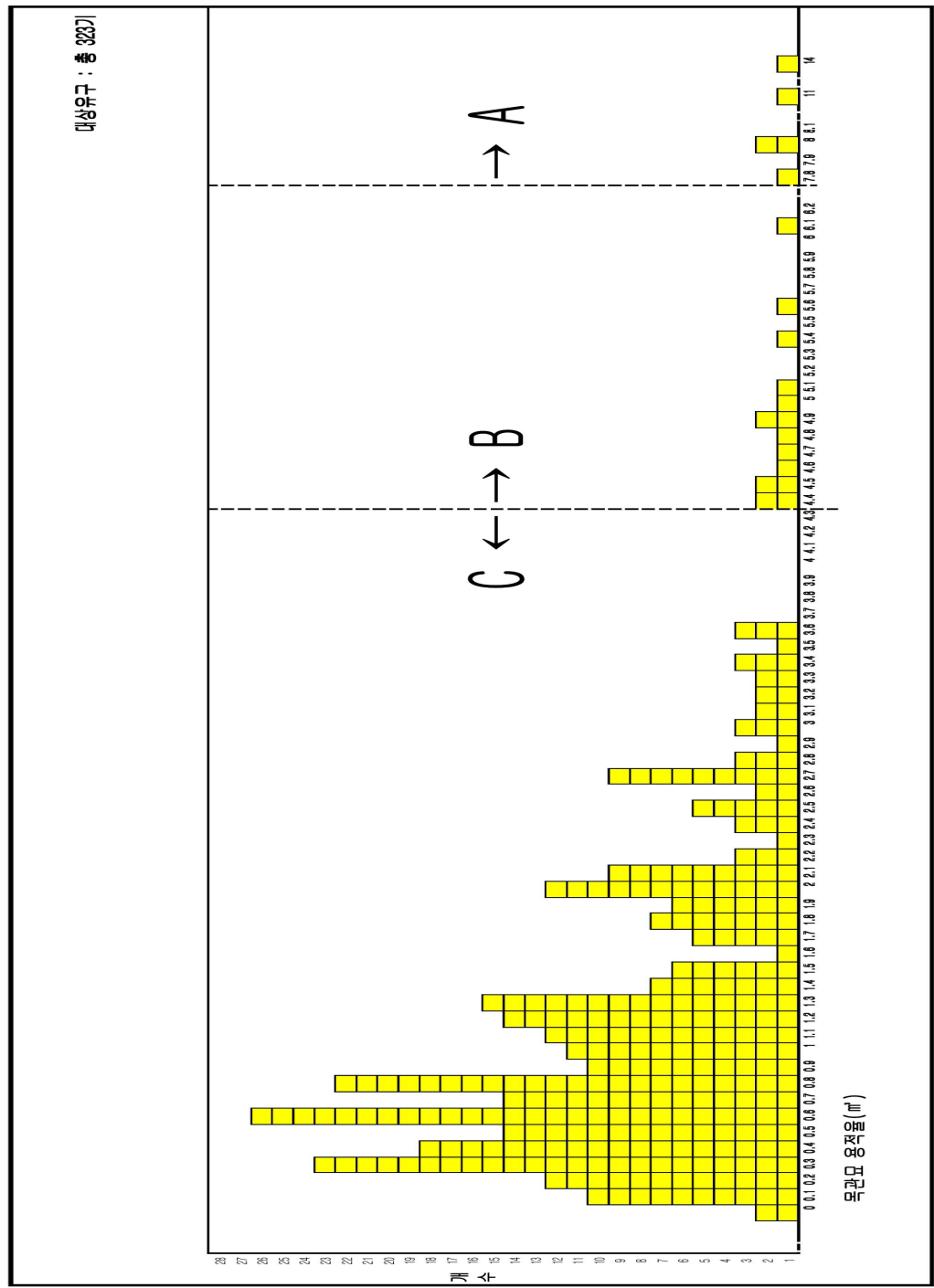


표 4. 진한지역 목관묘 속성표(옹적울 4.35m³ 이상)

유적	유구 번호	길이	너비	깊이	옹적울 (m³)	토기류	철기류	청동기/ 은제품	생활기류/ 장신구류	비고
대구 팔달동	35	28	1.45	1.15	467	파수부호(흑마)1, 단경호1, 옹(무)1, 토, 이양추1				적석목관묘
	45	293	1.34	1.55	6.09	주머니호1, 조우패(흑마)2, 장경호(흑마)4, 토기편(무)3	철모1, 판상철부1, 주조철부1, 철학1	검파두식세형동검1	지석2	적석목관묘, 통나무관
	50	299	1.25	1.36	5.08	파수부호1, 옹1, 토(주구내출토), 기대1	철사, 도자, 철기편6		지석1, 경식1	주구
	65	328	1.76	1.39	8.02	주머니호1				이단굴랑
	85	28	1.6	1.2	5.38	주머니호1, 조우패1				이단굴랑
	88	32	1.2	1.15	4.42	유개옹(蓋-무)2	주조철부2			적석목관묘
	100	36	1.45	2.05	10.70	조우패1	철검2, 철모2, 판상철부1, 단조철부1, 철학1	검파두식세형동검1, 동모2		통나무관 삼단굴랑
경주 조양동	11	242	1.21	1.69	495	주머니호1, 파수부호1	철모2, 판상철부1, 주조철부5, 단조철부1, 철검1, 철학1, 철사, 관수문철기편5			
	28	276	1.3	1.55	5.56	주머니호1, 단경호1, 옹(무)1	철검1, 주조철부1, 단조철부1, 철검1, 철학1, 철사3			
	38	258	1.28	1.5	495	주머니호1, 장경호(흑마)2, 단경호2, 옹3	철검1, 판상철부8, 주조철부2, 단조철부3, 철검1, 철학1, 철사, 도자3, 이형철기2	검파두식1, 동경(한경)4, 동원1	경식1	요갱
	55	29	1.42	1.16	4.78	대부호1	철모1, 철촉3, 단조철부1, 철검1, 철학1, 철사1		경식1	
	60	409	1.7	1.15	8.00	주머니호1, 양이부장동호1, 단경호1, 토, 구연부편1	철검1, 철모1	창동교구1, 마형대구1, 동원편2	경식1	목곽묘
성주 예산리	31	26	1.5	1.15	4.49	주머니호2, 조우패1, 장경호2(1-흑마), 단경호2, 소호1, 원2, 무1	철모7, 철패1, 철촉7, 주조철부6, 철학1, 철사2, 파비1, 축소모형동구1, 불명철기1	철조철검1, 검파두식, 청동제계공모2, 호형대구1	철선자1, 원통형철기2, 철도5, 불명철기5, 궁형철기1	요갱
경산 임당	A-1-114	26	1.26	1.5	4.91	주머니호1, 단경호2	철모1, 물미1, 단조철부1		철기1, 지석2	
영천 용전리	1	325	1.65	2.65	1421	주머니호7, 조우패1, 파수부호2, 장경호2, 소호1, 토(편)2, 구연부편2, 파수편1, 원관형토제품6, 토기편1	철검1, 환두도1, 철모1, 철제검파두식1, 철령1, 주조철부3, 단조철부24, 철검1, 닳형철기2	창동제검파두식1, 반부선금 구1, 동패1, 동파초1, 동경1, 동탁3, 동표5, 청동방추저, 청동방추저부속구1, 청동원 형주름편1, 청동원관형장식 1, 불명도금청동기1, 창동장식5, 창동제교구1, 은제관갑장식 은제관갑장식편1	경식2 (1장: 요갱내출토)	요갱
경주 사라리	130	337	2.3	1	7.75		검파부철검1, 철도4, 철모2, 철촉24, 제검3, 판상철부70, 단조철부4, 철검3, 관수형철기1, U자형철기1, 철북1, 불명철기2	철조검파두식세형동검2, 동경4, 동표9, 8자형동기2, 교구1, 청동편1, 청동원14, 창동소환17, 호형대구2, 원형유문동기1	경식1	요갱
평균		3.01	1.48	1.45	6.50	※ 조우패 :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무 : 무문토기, 흑마 : 흑색마연				

이는 깊이와 용적률의 상관관계가 우선 밀접하여 깊이에 있어서도 전체 길이·너비와 상관관계가 있는 전체 용적률에 있어서도 계속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당시 무덤을 조성함에 있어 노동력의 투여를 역산출할 수 있는 표본자료를 추출할 수 있으며 피장자의 신분적 우위 및 집단 내에서의 서열화와 더불어 고분군을 조성한 집단간의 우위를 추정할 수 있는 수치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²⁾.

이러한 결과치가 과연 변한지역 목관묘에서도 동일한 통계로 산출되는지 분석하여 보았다.

2. 변한지역³⁾ 목관묘 유적의 매장주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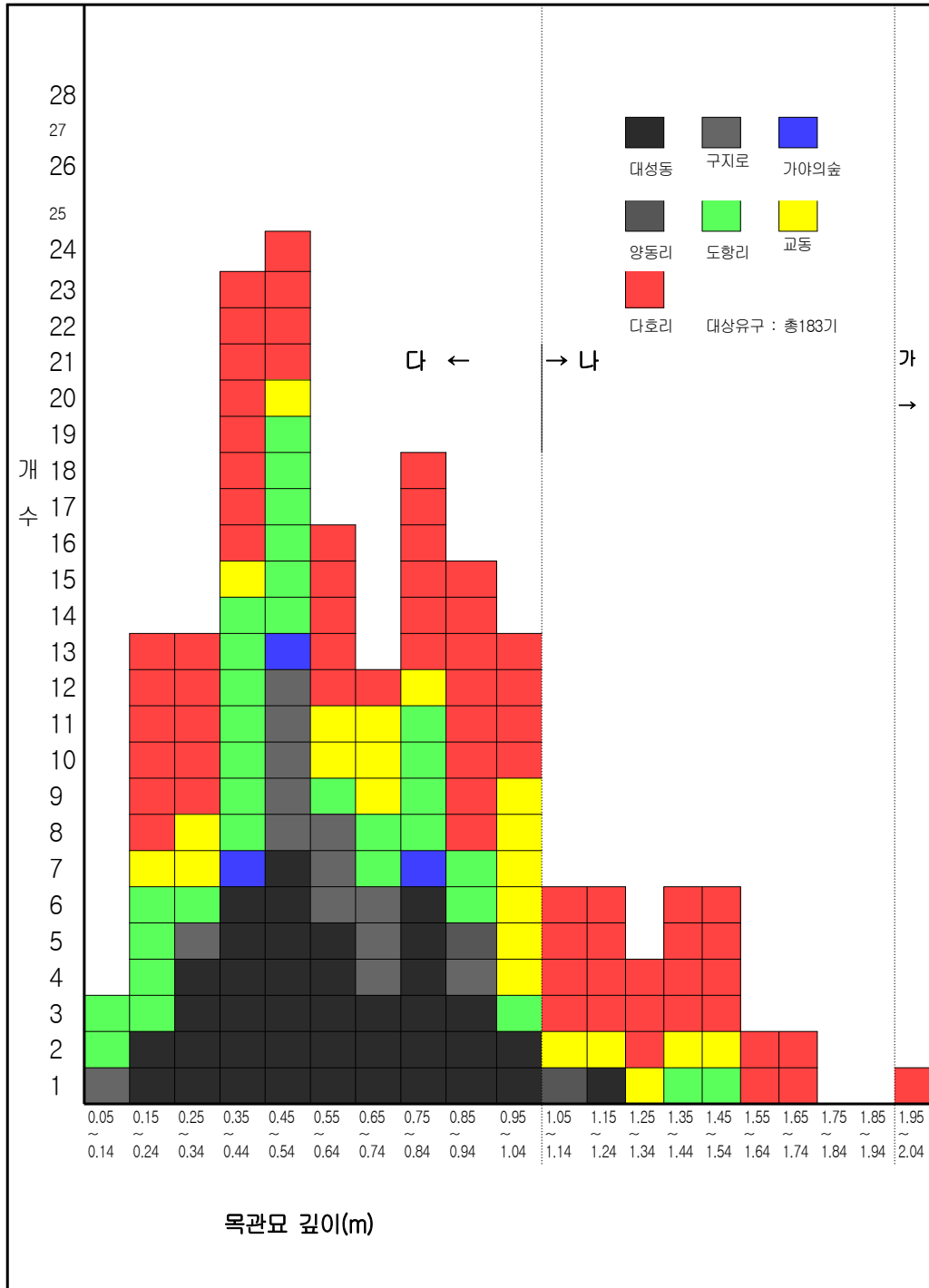
변한지역에서의 분석 대상유적은 김해 대성동유적, 김해 구지로유적, 김해 가야의숲 유적, 김해 양동리유적, 함안 도항리고분군, 밀양 교동유적, 창원 다호리유적 등지가 여기에 포함된다. 진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적이 적고 대상유구도 많지 않다. 따라서 통계결과치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자료의 집적은 미비하다고 판단된다.

진한지역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조건으로 변한지역 목관묘의 대상유구는 모두 193기이다. 진한지역에 비해 지금까지 조사된 유구의 수가 절반을 겨우 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역시 매장주체부의 길이, 너비, 깊이에 대한 용적률과 깊이에 대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표 5. 변한지역 목관묘 묘광깊이 도수분포도’에서 깊이 195~204cm에서 비록 1기에 불과하지만 독립적으로 매우 깊은 유구가 분포한다. 이를 ‘가’군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105~114cm 정도에서 ‘나’군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2) 이러한 용적률에 따른 노동력 산출을 위하여 실험적으로 실시하여 보았다. 실험 조건은 현대에 사용되고 있는 철제파비를 굴지구로, 삽은 굴착한 흙을 이동시키는데 한정하여 60대 남성을 통하여 실험하였다. 그 결과 길이 300cm, 너비 150cm, 깊이 90cm, 용적률 4m³ 정도의 묘광을 파는 데 들어간 인력은 2명으로 시간이 11시간 20분 소요되었다(굴착, 바닥 및 벽면정지 7시간 30분, 판 안치 및 보강토 다짐 30분, 충전 1시간 20분, 봉토조성 2시간). 그리고 길이 300cm, 너비 200cm, 깊이 100cm인 6m³의 묘광은 2명의 인력으로 18시간 10분이 소요(굴착 9시간, 바닥 및 벽면 정지 4시간 30분, 판 안치 및 보강토다짐 1시간, 판 상부충전 1시간 30분, 봉토조성 2시간 10분)되었다. 이 시간은 단순한 작업시간이고 중간에 행하여졌을 의례행위 및 휴식시간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4m³ 정도의 규모는 최소 1.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며, 6m³ 이상의 규모일 경우는 최소 2.5일 정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간주된다.

3) 본고에서 변한지역이라 함은 우선 김해를 중심으로 하는 낙동강 하류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금의 경상남도, 부산권역의 일원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표 5. 변한지역 목관묘 묘광깊이 도수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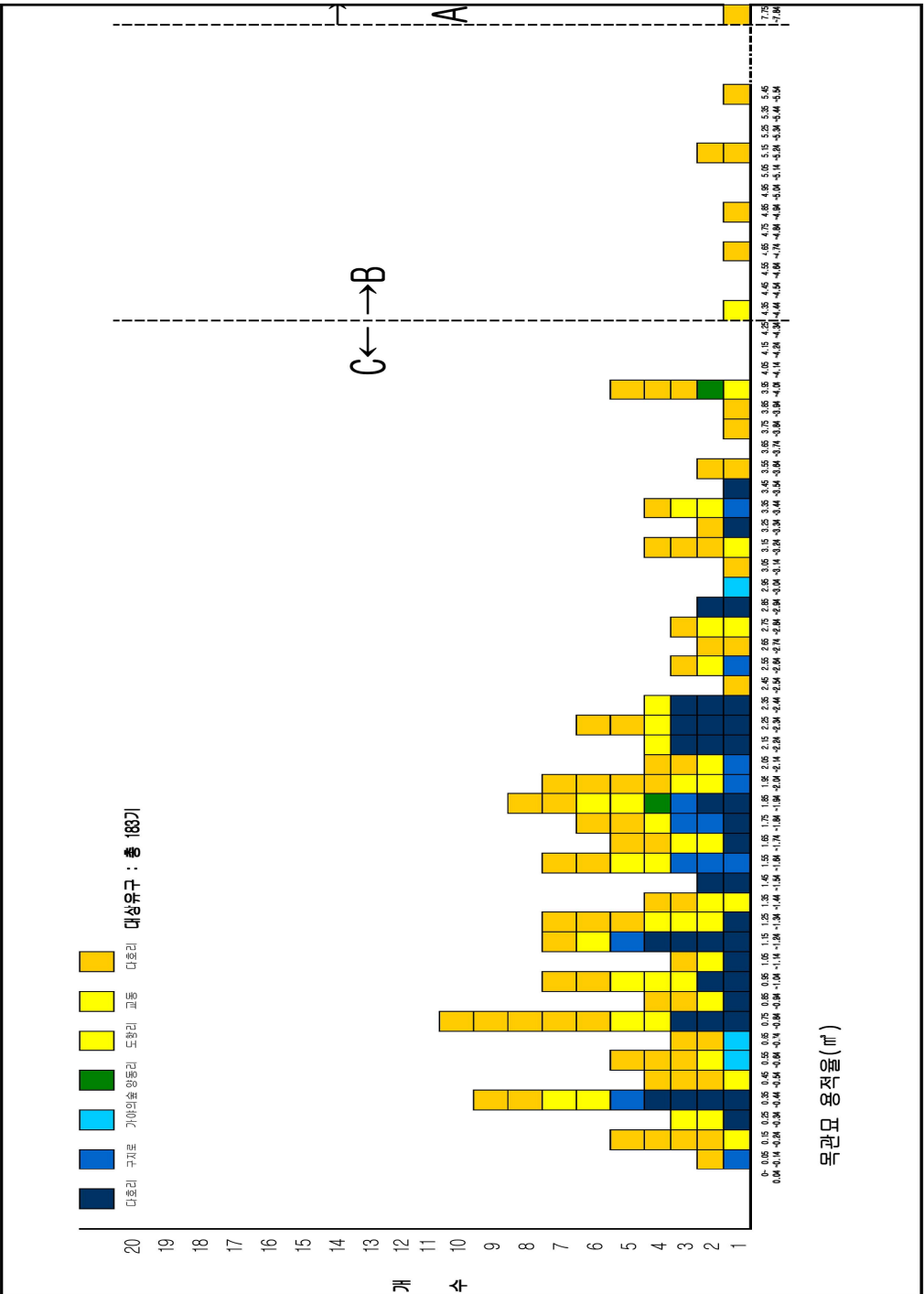
나머지는 ‘다’군으로 하여 분류 가능할 것이다. 이를 다시 깊이 105cm 이상 목관묘의 부장유물과 함께 제시한 것이 ‘표 6. 변한지역 목관묘 속성표’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유구는 모두 34기로 전체 대상에서 18.2%를 점유하고 있고 이 가운데 ‘가’군에 속하는 것은 창원 다호리 1호분이 유일하다. 이들의 평균 깊이는 135cm이고, 용적률은 3.49m³에 이른다.

표 6. 변한지역 목관묘 속성표(묘광깊이 1.05m이상)

유적	유구 번호	길이	너비	깊이	용적률 (m³)	토기류	철기류	청동기/ 은제류	생활기류/장신구류	비고
창원 다호리	1	2.78	1.36	2.05	7.75		철초철검1, 목제검과부철검1, 철검편2, 철모4, 철과1, 철초철제 환두도자1, 목병부방주상철부3, 판상철부14, 목병부방주상철부1, 목병부철제공부1, 철제공부1, 주조철부1, 목병부철제파비2, 목병부검형철기, 목병부철제파비 2, 목병부검형철기1	철초동검2, 동제검편, 동모1, 성운문검1, 청동대귀, 거치문동편1, 동환4, 오수전3, 소동탁1	철궁밧공시, 철기원형두 1, 철기방형두1, 철기배 1, 유개통형철기1, 원통 형철기저귀1, 철기개2, 철기편4, 목제검1, 소쿠리테1, 철기못1, 철선1	통나무관, 요경
	2	2.9	1.15	1.2	4.00	조우패1(혹마), 주머니 호1(혹마, 후색토기1)	흑철찰검편1	창동제검초금구 편1, 찰	흑철목심통형전1, 흑철환1, 지석2	통나무관, 요경
	4	2	0.8	1.3	2.08		주조철부1, 철착1			
	6	2.6	1.25	1.5	4.88	삼각형검토대토기1, 원1, 주머니호1(혹마), 원지호관2	동제검과두식부철검1, 철모4, 판상철부8, 주조철부2	한국식동검1	마제식부1, 철기별1, 철기두1, 철기통형배, 철기개1, 경석1	
	8	2.4	0.85	1.35	2.75		판상철부1			
	11	2.4	1.1	1.5	3.96	주머니호1, 조우패1, 파수부호1	철검편1, 철촉1, 판상철부1, 파비1	창동기편	대금1, 철기편	
	13	2.4	0.95	1.68	3.83	주머니호1, 조우패1, 무2-3개제	판상철부1, 철모1			
	17	2.41	0.98	1.34	3.16	파수부호1, 함지형토기 1, 보시기형토기1	철모1, 단조철부1		통형철기1, 철기배1, 원통형철기1, 철기고배1	요경
	19	2.55	1.05	1.5	4.02		철제파비1, קלט형장식이형철기1, 철모2	철초동검1, 쌍두관상동기1, 유각형동기1, 유구동기1	성격머상철기2	요경
	22	2.45	1	1.4	3.43	조우패2, 보시기1	철사1, 철기편다수		지석1	요경
	24	2.77	0.86	1.12	2.67	조우패2, 장각고배1, 단각고배1	철착1	동모1	두조철초1, 철전1, 통형철기1, 원통형철합1, 목심철병1, 사각분형철초1, 철선1, 지석2	통나무관, 요경
	25	2.5	0.95	1.35	3.21	주머니호1, 메병형토기 1, 보시기2, 조우패2	철모1, 철검1, 단조철부1		통형철기편	
	29	2.5	1.1	1.7	4.68	파수부호1, 보시기2, 승문호관1, 토제방추자1	철부1, 소환두도자1, 철착1		통형철기1, 철기개1, 철기편	
	31	2.8	1.3	1.5	5.46	승문단경호1, 양유부호2, 조우패1, 주머니호1, 소형편구호1	철제파비1, 철검1, 단조철부1		천하식제식유1	
	32	2.73	1.2	1.6	5.24	주머니호1, 승문단경호1	철초철검1, 철모1, 철촉다수, 철부3, 철착1, 철사1, 철검1, 철제낚시바늘2		원통형철기2, 이형철기1, 철화살뿔1, 유개원통형 철기2, 방추자1	
	35	2.5	0.9	1.1	2.48	연철호1, 소형호1, 주머니호2, 승문단경호1	철검1, 단조철부1, 철사1, 이형철기2, 철기편		철배1, 원형철기1, 철기개1, 철기고배 등	
	36	2.62	1.04	1.13	3.08	조우패1, 장란형토기2	철모1, 단조철부1, 철제검과부검1		철선3, 석제대궂넛1	

유적	유구 번호	길이	너비	깊이	용적율 (㎡)	토기류	철기류	청동기/ 은채류	생활기류/장신구류	비고
	40	2.29	1.03	1.4	3.30	삼각형점토대토기, 완형개, 파수부호1, 단경호1, 주머니호1	철모1, 철검편1, 판상철부1, 주조철부2, 단조철부1, 철검1			
	42	2.2	0.95	1.55	3.24	방형점토대토기2, 주머니호1, 조우패1	단조철부2, 철모2			
	43	2.3	0.84	1.17	2.36	소형토기1, 주머니호2	철검1, 철부1			
	56	2.7	1.1	1.2	3.56	조우패2				
	66	2.5	1.2	1.3	3.90	파수부장동호1, 원저단경호1	철검1, 철부1			
	70	2.5	1.2	1.2	3.60	주머니호1, 조우패3, 원저단경호1	철검2, 철부1, 철각1, 철사2, 철검2, 철비1, 철촉11			
	71	3.37	1.4	1.1	5.19	대부주머니호1, 주머니호1	철모2, 철각1, 철사1, 철검1			
밀양 교동	10	2.39	1.04	1.27	3.16	조우패1, 장란옹1, 완1	철검1, 철각1, 철모1, 단조철부1, 판상철부1, 철검1, 철사1, 제검1			
	12	2.3	0.96	1.53	3.38	조우패1	단조철부1			
	17	2.4	1.02	1.4	3.43	주머니호1, 단경호1, 소옹1, 장란옹2, 개1, 망태기형토기1, 원반형토제품6		동경1 (이제자명대경), 원반형 청동기3		요경
	20	2.8	0.93	1.09	2.84	주머니호1, 파수부호1	철검1, 철모2, 주조철부2, 단조철부1, 철검2, 철사1			
	21	2.43	0.97	1.17	2.76	주머니호1	철검1, 단조철부1, 판상철부1			
함안 도령리	30	2.53	1.21	1.44	4.41	주머니호1, 조우패1, 완2				
	70	2.42	1.13	1.46	3.99	주머니호1, 조우패1, 단경호1	판상철부1, 도자1			
김해 대성동	66	2.3	0.91	1.16	2.43		철검1	호형대구1		
	V-12	2.79	1.11	1.08	3.34	단경호1				
김해 양동리	55	2.93	1.23	1.12	4.04	조우패1, 원저호1	철검2, 철모1, 철촉7, 단조철부1, 철검1, 도자1	동경1, 견과두식, 청동금구2		요경
평균		2.54	1.06	1.35	3.49	※ 조우패 :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무 : 무문토기, 흑마 : 흑색마연				

표 7. 변한지역 목관묘 용적율 도수분포도



그리고 전체 용적률에 대하여 도수분포도를 작성한 것이 ‘표 7. 변한지역 목관묘 용적률 도수분포도’이다. 대상유구는 유구가 훼손되어 계측치가 불확실한 것을 제외한 167기를 대상으로 하였다. 여기서도 역시 진한지역과 거의 동일한 특징이 간주된다. 즉, 7.8m³ 이상인 다호리 1호 목관묘가 ‘A’군에 포함되고 독립적으로 구분 가능하다. 그리고 4.3~5.5m³까지를 ‘B’군으로, 4m³이하를 ‘C’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계치는 진한지역과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한 결과치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깊이에서 변한지역의 것이 더 깊은 유구에서 구분점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A’군과 ‘B’군에 속하는 유구 수는 모두 7기로 분석대상 유구에서 불과 3.8%에 속하며, ‘A’군에 속하는 것은 역시 창원 다호리 1호분이 유일하다. 이를 표로 정리한 것이 ‘표 8. 변한지역 목관묘 속성표(용적률 4.35m³ 이상)’이다. 이에 해당하는 유구는 깊이가 156cm이고, 용적률은 4.80m³으로 역시 다른 유구에 비해 월등함을 알 수 있다.

표 8. 변한지역 목관묘 속성표 (용적률 4.35m³ 이상)

유적	유구 번호	길이	너비	깊이	용적률 (m ³)	토기류	철기류	청동기/ 은제류	생활기류/ 장신구류	비고
다호리	1	2.78	1.36	2.05	7.75		철초철검1, 목제검과부철검1, 철검편2, 철모4, 철과1, 철초철제완두도지1, 목병부편상철부3, 판상철부14, 목병부방주상철부1, 목병부철제공부1, 철제공부1, 주조철부1, 목병부철제마비2, 목병부검형철기, 목병부철제마비2, 목병부검형철기	철초동검2, 동제검과1, 동모1, 상운문검1, 청동대구1, 거지문동판1, 동원4, 오수검3, 소동탁1	철궁밧공시, 철기원형두1, 철기방형두1, 철기배1, 유개통형철기1, 원통형철기저부1, 철기개2, 철기편4, 목제함1, 소구리테1, 철기못1, 칠선1	통나무관 요경
	6	2.6	1.25	1.5	4.88	삼각형검도대토기1, 완1, 주머니호1(흑마), 원저호관2	동제검과두식부철검1, 철모4, 판상철부3, 주조철부2	한국식동검1	마제석부1, 철기발1, 철기두1, 철기통형배1, 철기개1, 경석1	
	29	2.5	1.1	1.7	4.68	과수부호1, 보시기2, 승문호관1, 방추자1	철부1, 소완두도지1, 철적1		통형철기1, 철기개1, 철기편1	
	31	2.8	1.3	1.5	5.46	승문단경호1, 양유부호2, 조우패1, 주머니호1, 소형편구호1	철제마비1, 철검1, 단조철부1		천하석제석옥1	
	32	2.73	1.2	1.6	5.24	주머니호1, 승문단경호1	철초철검1, 철모1, 철촉다수, 철부3, 철착1, 철사1, 철검1, 철제낚시바늘2		원통형철기2, 이형철기1, 철기화살통1, 유개원통형철기2, 방추자1	
	71	3.37	1.4	1.1	5.19	대부주머니호1, 주머니호1	철모2, 철착1, 철사1, 철검1			
양동리	30	2.53	1.21	1.44	4.41	주머니호1, 조우패1, 완2				
평균		2.76	1.26	1.56	4.80	※조우패·조합식우각형과수부호, 무·무문토기, 흑·흑색마면				

이상을 정리하여 보면, 진·변한지역 목관묘는 묘광의 깊이가 깊고 용적이 큰 유구의 특징에서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진한지역은 깊이가 얕으면서 용적은 넓은 구조로 이해될 수 있는 반면, 변한지역은 깊이가 깊지만 용적은 상대적으로 적은 구조로 이해된다. 이러한 것이 유물부장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Ⅲ. 유물부장 분석

무덤에서 유물의 부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장속 중에 하나이다. 우리는 무덤에 부장된 유물을 통해서 피장자의 정치적, 사회적 위치를 포함하여 여러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해결 고리로 활용하고 있다. 즉, 부장유물은 시기적·공간적 속성 및 피장자의 정치적·사회적 위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조합관계로 표현되고 있다. 여기서는 앞 장에서 목관묘에 나타나는 매장주체부의 규모와 부장유물의 매장행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앞서 분석한 진·변한지역 목관묘 중에서 각각 ‘A’군과 ‘B’군에 해당되고 유물 부장 상태가 양호한 무덤의 조사예를 참조로 하여 재구성하여 보았다.

1. 진한지역 목관묘 유적의 유물부장

진한지역에서 조사된 목관묘 가운데 ‘A’군과 ‘B’군에 속하는 것 중에서 보존상태가 양호하면서 조사 내용이 분명한 자료를 표본자료로 삼아 유물 부장 위치와 유물의 종류를 분석하여 <표 9>로 작성하였고 이를 재구성하여 도면화 작업을 실시하여 제시하였다<도면 1~4 참조>.

<표 9>에 의하면, 진한지역의 깊고 용적률이 넓은 대형의 목관묘의 유물은 상당한 절차와 순서를 가지고 각각 부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순서적으로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요갱 내부에 유물을 넣어 부장함 ② 목관을 설치하기 앞서 목관을 안치하는 바닥에 유물을 설치하는 예가 있음(성주 예산리 31호) ③ 목관 내부에 시신과 함께 동경·장신구류 등이 부장됨 ④ 관을 묘광에 안치한 후 주변 보강토 내에 토기류, 철기류, 주조철부 등 철기류 부장 ⑤ 관 보강토를 다진 후 목관 상부에 토기 및 청동기류 등 부장 ⑥ 관 상부 충진토를 채우는 과정에 토기류 및 각종 부장품 부장 ⑦ 봉토를 밀봉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마형대구 등 각종 유물 부장.

표 9. 진한지역 대표 목관묘 유물부장위치에 따른 유물부장양상

분류	유구명	모광규모(m)			유적물	유 물 부 장 위 치										부장위치 미상
		길이	너비	깊이		요강내부	관하부	관내부	보강토			관상부	목개상부/ 총진토내부	봉토내부		
									관속면/ 보강토바닥	보강토 내부	보강토상부					
진한 지역	예산리 31호	26	15	1.15	49	철조철검, 철선자, 철과, 철사 ² , 주조 철부 ² , 소형능금구, 철모 ⁷	궁형 철기 ¹ , 철촉 ⁷		조합식우각형파 수부호 ¹ , 장경호 1, 단경호 ¹ , 대부소호 ¹ , 완 ² , 주조철부 ⁴ , 원통 형철기 ² , 철두 ⁶ , 원반형철기, 불명철기 ¹				주머니호 ¹ , 철촉 ¹ , 청동검 파두식 ¹	흑색미연장경 호 ¹ , 단경호 ¹ , 무문토기구연 부편 ¹ , 금동개 공모 ² , 지석 ²	청동호형대구 ¹	
	영천 용전리	3.25	1.65	2.65	1421	청동원통형주물편 ¹ , 동탁 ² , 동포 ¹ , 유리옥	파수부호편 ¹ , 완두도자 ¹ , 철검 ¹ , 단조 철부 ¹ , 주조 철부 ²⁴ , 철 제검파두식 ¹ , 철제대구편 ¹ , 철령 ¹	장경호구연부편 ¹ , 소용 ¹ , 구연부편 ² , 파수편 ¹ , 원관형도 제품 ¹ , 철검 ¹ , 철모 1, 동경편 ¹ , 청동원 관형장식 ¹ , 동포 ⁴ , 불명도금청동기편 ¹ , 청동편부선금구 ² , 은제칼집장식편 ² , 경식 ¹			파수부장경호편 ¹ , 구연부편 ¹ , 주조철부 2, 청동검파두식 ¹ , 동과 ¹ , 동과초 ¹ , 동탁 편 ¹ , 청동방추채 ¹ , 방추채부속구 ¹ , 청동 장식 ⁵ ※ 보강토상 부인지 관상부인지 불명확		주머니호구연 부편 ² , 주머니 호저부편 ² , 조합식우각형 파수부호편 ¹ , 제갈편 ² , 청동제 노기 ¹ , 동과 ¹ , 철경 동추편 ¹ , 오수편 ³	철모 ¹ , 철과 ¹ , 관상 철부 ⁸ , 단조철부 ⁷ , 철검 ¹ , 닳형철기 ¹ , 노기 ¹ , 동과 ¹ , 철경 동추편 ¹ , 오수편 ³		
	경주 조양동 38호	2.58	1.28	1.5	495		철검 ¹ , 관상철부 ⁸ , 청동검파두식 ¹ , 한경 ⁴ , 동환 ¹ , 경식 ¹			흑색미연장경호 ² , 완 ³	주머니호 ¹ , 단경호 ²	주머니호 ¹ , 단경호 ²			방추채 ¹ , 도자 3, 철검 ¹ , 철촉 1, 철사 ¹ , 이형 철기 ²	
	경주 사라리 130호	3.37	2.3	1	7.75	유기물 혼적		청동검파두철검 ¹ , 소도 ³ , 도자 ¹ , 용도 불명철기 ¹ , 관상철 부 ⁶ , 철조동검 ² , 청동한철 ¹ , 청동호 형대구 ² , 동포 ¹ , 방제검 ² , 청동소환 ² 열	조합식우각형파 수부호 ¹ , 주머니 호 ¹ , 연철유개용 1, 철촉 ² , 철검 ³ , 철부 ⁴ , 관상 철부 ⁶ , 용도불명 철기 ² , 방제검 ² , 원형유문동기 ¹	연철 토기 ¹ , 철부 ¹					대호 ³ , 호 ¹ , 관수형 철기 ¹ , U자형철기 ¹ , 철모 ² , 제갈 ³	
평관/유물조합	295	1.68	1.58	7.65	토기	0	1	6	9	1	7	4	13	4	1	
					철기	2	1	1	13	0	0	0	0	0	0	
					청동기	4	0	35	3	0	11	1	3	4	0	
					철기	14	30	82	41	1	2	1	2	49	8	
					장신구	1	0	2	0	0	0	0	0	0	0	
					기타	유기물혼	0	0	0	0	0	0	2(지석)	3(오수편)	0	
					합계	21	32	126	66	2	20	6	254	60	9	

※ 철기류의 경우 철초도 1점으로 인정하여 계산함. 청동검파두철검도 청동기류와 철기류로 따로 분리해서 계산.
따라서 전체유물수와 유물조합의 유물수가 일치하지 않음.

이상과 같은 부장행위의 전 과정이 이루어진 목관묘는 없고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순서가 생략되기도 한다. 하지만 대형 목관묘에서는 이와 같은 부장행위가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음이 보고서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결과 밝혀졌다. 즉, 이 시기에 일정한 위계를 가진 신분의 무덤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확실적인 규율성을 가진 것은 아닐지라도 일정한 부장행위 과정이 있었고 이를 염두에 둔 묘광 조성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짐작된다.

즉, 이러한 여러 과정상의 부장유물의 매납과 이에 동반된 의례절차가 있었을 것이고 이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넓고 깊은 공간이 요구되었을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이에 적합한 규모를 예상하고 묘광을 조성하였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표 9>.

2. 변한지역 목관묘 유적의 유물부장

변한지역은 진한지역에 비해 목관묘의 분석 대상 유구가 절반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결과에 대해서는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자료에서 'A'군과 'B'군에 속하는 대상유구 중 양호한 몇 기의 예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표 10>과 도면으로 재구성하여 보았다. <표 10>에 의하면 유물 부장위치의 순서적 의미는 진한지역 목관묘에 비해 창원 다호리 1호분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간단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진한과 변한지역 목관묘군에서 규모와 유물 부장상 세부적인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앞서 살펴보았지만 진한지역의 목관묘는 깊이가 85cm 정도로 얕지만 용적은 4.35m³ 이상에서 하위 그룹과 상위그룹으로 구분된다. 반면, 변한지역 목관묘는 깊이가 105cm 정도로 깊고 용적은 동일하게 4.35m³ 정도이다. 이러한 현상은 상위그룹에만 제한적으로 분석하였을 때 보다 구체화됨을 알 수 있다. 진한지역은 깊이 85cm 이상의 대상유구에 대해 통계를 내어본 평균치가 깊이 119cm, 용적 3.98m³이고, 용적이 4.35m³ 이상인 대상유구에 대해 통계를 내어본 평균치가 깊이 145cm, 용적 6.50m³이다. 변한지역은 깊이 105cm 이상의 대상유구에 대한 통계 평균값이 깊이 135cm, 용적 3.49m³이고 용적이 4.35m³ 이상인 유구의 통계 평균값이 깊이 156cm, 용적 4.80m³이었다. 그리고 진한지역은 부장유물의 유물 배치공간 및 배치순서가 5~7단계로 체계화되어 있는 반면, 변한지역은 창원 다호리 1호를 제외하고는 진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하여 2~3단계에 불과하다.

표 10. 변한지역 대표 목관묘 유물부장위치에 따른 유물부장양상

분류	유구명	요광규모(m)			유적물	유 물 부 장 위 치									부장위치 미상	
		길이	너비	깊이		요강내부	관하부	관내부	보강토			관상부	목개상부/ 총진토내부	봉토내부		
									관측면/ 보강토바닥	보강토내부	보강토상부					
변한 지역	다호리 1호	2.78	1.36	2.05	7.75	철조철검1, 철조동검2, 철조철제환두도자, 철기부2, 철모4, 주조 철부6, 목제검과부철 검1, 철검2, 동모, 성운검1, 청동대구, 거지문동환1, 동환4, 소동탁1, 오수경3	철기원 형두, 철부1, 받	무문토기편1, 관상철부1, 유리구슬1, 목제함1	봉상철조1, 유계동형 철기1, 철기꺾, 철기 방형구1, 철기편1, 바구니편1, 노끈1, 목방철부1, 방주상철부1, 철제파비1					도기편1, 우각형철기 1, 철공편1, 철선자, 관상철부1, 철제공부 1, 철기편1		
	가야의 숲 3호	2.6	1.4	0.82	2.98			철선자2, 철조철검1, 소문경1		조합식우각형파수부 호2, 주머니호2, 파수부호1, 원통형 철기2, 단조철부2, 철되1, 파비, 소도자1, 철환1, 동래1						
	교동 10호	2.39	1.04	1.27	3.16			철검1, 철래1, 관상철부2	철모2, 철좌1, 철비1, 단조철부1, 철검1, 관상철기1		주머니호1, 환1			장동옹1, 철제제검1		
	도항리 70호	2.42	1.13	1.46	3.99					주머니호1, 관상철부1	조합식우각형파수 부호1			단경호1, 도자1	관상철부1	
평균/유물조합					4.7	토 기	0	0	1	0	6	3	0	3	0	
						철 기	8	1	3	6	2	0	0	3	0	
						청동기	11	0	1	0	1	0	0	0	0	
						철기	15	1	6	10	7	0	0	5	1	
						장신구	0	0	1	0	0	0	0	0	0	
						기 타	4(오수경3, 목제검편1)	1(받)	1(목제함)	1(노끈)	0	0	0	0	0	
						합 계	38	3	13	17	16	3	0	11	1	

※ 철기류의 경우 철초도 1점으로 인정하여 계산함. 청동검과두철검도 청동기류와 철기류로 따로 분리해서 계산.
따라서 전체유물수와 유물조합의 유물수가 일치하지 않음.

이상의 내용을 통한다면, 진한지역은 유구의 깊이가 변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얕지만 용적에서 크고 부장유물의 배치에 있어 여러 단계를 거쳐 거행하는 체계성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비해 변한지역은 유구는 깊게 파면서 용적은 작은 구조에 유물 부장행위가 단순한 과정을 거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묘제의 차이는 진한과 변한지역의 목관묘 조성단계의 사회적 분화과정이나 신분질서의 위계에서 발전과정상의 차이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고대문헌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이 시기 진·변한지역에는 이미 ‘臣智’, ‘險側’, ‘樊滅’, ‘殺奚’, ‘邑借’라고 불리는 우두머리가 집단의 규모에 따라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집단간의 우위에 따라 신분 위계가 발생하였을 것이고 이에 따른 지배자들의 무덤 또한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발굴조사 자료가 진한지역에 비해 변한지역이 충분하지 못하여 나타난 오류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차이는 어느 정도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는 깊이에 차이를 둔 ‘가’군과 ‘나’군, 용적에 차이를 둔 ‘A’군과 ‘B’군 이상에 해당되는 유구의 점유율상에 있어서도 진한지역이 변한지역에 비해 전체적으로 다소 우위에 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상에서 진·변한지역에서 조사된 목관묘의 매장주체부와 유물부장에 관한 묘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런데, 목관의 형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하였다. 목관의 형태나 구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자료의 한계로 정확한 성격을 밝히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소위 ‘구유형’ 목관이라는 형태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실물적 자료의 축적이 미비한 상황에서 이를 통한 계통 분류는 자칫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하여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삼 강조해 둔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 통나무 가운데 부분을 이용하여 제거하고 빈 공간을 만든 후 피장자를 안치하는 목관을 소위 ‘凹槽棺’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형태를 가진 목관묘의 지역적인 분포권은 추적 가능한데 주로 長江 중하류역에 해당하는 河南省 남부지역, 湖南省, 湖北省, 安徽省, 江蘇省 지역으로 戰國시대 말기에서 前漢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楚나라 문화권역의 목관묘 內棺에서 발굴조사를 통해 보고되어 있다. 그리고 長江 상류역인 사천성지역에서도 통나무를 파내어서 목관을 만드는 소위 ‘船棺葬’이 일찍부터 유행하고 있다⁴⁾. 그리고 중국 남방지역인 廣西壯族自治區, 福建省, 江西省 등지의 산상의 자

4) 成都市文物考古工作隊·蒲江縣文物管理所, 『成都市蒲江縣船棺墓發掘簡報』, 『文物』2002-4, pp.27-31

연동굴 또는 인공동굴을 파서 무덤을 안치하는 ‘崖墓’의 목관에도 다양한 형태의 ‘凹槽棺’이 상대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⁵⁾. 그 외에도, 실크로드의 초원문화권인 新疆지역 목관묘에서도 유사한 구유형 목관이 채용되고 있다⁶⁾.

그리고 腰坑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요갱이 진·변한지역의 목관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소수에 불과하다. 중국의 목관묘, 목곽묘 유적에서도 요갱이 설치되어 있는 사례가 보고된 것은 드문 상태이다. 황하 상류지역은 신석기시대부터 등장하여 戰國시대 중기까지 일부 무덤에서 발견되다가 漢代에 오면 자취를 감추고 일부 황하 하류인 山東省지역 일부에서만 보고된다고 한다⁷⁾. 그리고 장강 상류역인 三峽지구와 重慶, 貴州省, 雲南省 지역에서는 明代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장제라고 한다⁸⁾.

이상 목관의 구조에서 소위 ‘구유형’ 목관의 채용이나 요갱의 설치 등은 중국에서도 장강 유역에서 많이 유행하는 묘제라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풍습을 남북적 요소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남부지역 특히 진·변한지역에서 출현하는 구유형 목관의 제작과 요갱의 풍습 역시 동일한 현상으로 이해하여도 무방할 듯하다.

그리고 이번 속성 분석에서는 제외하였지만 묘제 분석에서 중요한 것이 봉분의 조성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관묘단계에 대부분의 유구가 평지나 평지성 구릉의 말단부 또는 구릉 평지면에 군집되어 조성되었기 때문에 봉토의 잔존 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이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 내지는 의식을 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보고서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조사자 역시 봉토라는 개념을 소홀히 하여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이번 논문을 작성하면서 실제 실험적으로 목관묘와 유사한 구조의 광을 파서 되메우기하는 과정에서 파낸 흙을 그대로 밀봉하여도 일정한 높이로 자연적으로 봉분상의 높이를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목관묘 조성에서 흙을 파내어 묘광을 설치하고 내부에 관과 각종 유물을 부장한 후 충전토로 파낸 흙으로 다시 밀봉하면 나머지 흙을 인위적으로 제거하지 않는 이상 자연적으로 높이 50cm 이상의 봉분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고 무덤이 크고 깊을수록 그 범위가 훨씬 커졌을 것임은 당연하다. 이는 앞으로의 조사 시 더욱 염두에 둘 부분으로 삼한시대 목관묘 연구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5) 吳春明, 『中國南方崖葬的類型學考察』, 『考古學報』 1999-3, pp.311-336

6) 新疆文物考古研究所, 『新疆尉犁縣營盤墓地1995年發掘簡報』, 『文物』 2002-6, pp.4-45

7) 郭亮, 『陝西地區腰坑葬俗研究』, 『東南文化』 2007-5, pp.24-32

8) 楊華, 『長江三峽地區古代腰坑葬俗的考古研究』, 『三峽大學學報』 2005-1

IV. 맺음말

지금까지 창원 다호리 고분 목관묘 유구와 관련하여 진·변한지역 목관묘의 매장주체부와 부장유물에 대하여 속성분석을 시도하였다. 물론, 이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잡한 속성이 검출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선학동료들의 훌륭한 연구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내용을 생략하였다. 여러 연구자들이 노력하여 조사한 보고서의 내용을 본인의 이해력 부족으로 오류를 범한 것도 많으리라 생각한다.

창원 다호리 1호분은 지금까지 조사된 진·변한지역 목관묘 중에서 가장 특출한 목관묘 유구가 분명함이 금번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목관묘 조영사회에서 이미 각 집단 간에 신분적 위계를 달리하면서 매장주체부의 조영 및 유물 부장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었음을 밝히는데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데 자부한다. 앞으로 자료가 증가되면 부족하고 오류를 범한 내용이 시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선배제현의 질정과 편달을 바란다.

끝으로, 다호리 20주년 학술대회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국립중앙박물관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논문을 준비하면서 자료와 도면 작성에 협조하여 주신 우리 연구원의 최경규, 권종호, 김미경 선생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전합니다.

참고 문헌

□ 논문·저서

- 權五榮, 1996, 『三韓의 ‘國’에 대한 研究』, 서울대학교대학원 문학박사 학위논문
- 權志瑛, 2006, 「木棺墓에서 木槨墓로의 轉換樣相에 대한 檢討」, 『영남고고학보』 38
- 김수남, 1998, 「경산 임당유적 목관묘의 성격에 대하여」, 『환호취락과 농경사회의 형성』 제3회 영남·구주고고학회 합동고고학대회 발표요지
- 김용성, 2004, 「임당 지역의 발굴고분」, 『영남고고학 20년 발자취』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 박승규, 1997, 「경주 사다리유적 130호묘에 대하여」, 『신라문화』 14
- , 1998, 「대구 팔달동유적의 적석목관묘」, 『제41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요지』
- 白承玉, 2001, 『加耶 各國의 成長과 發展에 관한 研究』, 부산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 白承忠, 1995, 『加耶의 地域聯盟史 研究』, 부산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 宋桂鉉, 2000, 「辰·弁韓文化의 形成과 變遷」, 『고고학으로 본 변·진한과 왜』 영남·구주고고학회 제4회 합동고고학대회
- 申敬澈, 1991, 「金海 大成洞古墳群의 발굴성과」, 『加耶史의 再照明』, 김해시
- , 1995, 「金海 大成洞·東萊 福泉洞古墳群 點描」, 『釜大史學』 제19집
- 辛勇旻, 1998, 「삼한시대 목곽묘의 기원에 대한 초보적 연구 - 중국목곽묘를 중심으로 -」, 『弁·辰의 世界』,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복천분관
- , 1999, 『漢代 木槨墓 研究』, 동아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 , 2000, 「弁·辰韓地域의 外來系 遺物」, 『고고학으로 본 변·진한과 왜』 영남·구주합동고고학대회 제4회 합동고고학대회.
- 沈載龍, 2000, 「金海 大成洞遺蹟의 三韓時代 무덤」,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9
- 安在皓, 2000, 「昌原 茶戶里遺蹟의 編年」, 『韓國古代史와 考古學-鶴山金廷鶴博士頌壽紀念論叢』, 學研文化社
- 李健茂 외, 1989, 「義昌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 I」, 『考古學誌』 1
- , 1991, 「昌原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 II」, 『考古學誌』 3

- _____, 1993, 「昌原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Ⅲ」『考古學誌』 5
- _____, 1995, 「昌原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Ⅳ」『考古學誌』 7
- 李盛周, 1999, 「辰·弁韓地域 墳墓出土 1~4世紀 土器의 編年」『嶺南考古學』 24
- 李在賢, 1995, 「弁·辰韓社會의 發展過程-木槨墓의 出現背景과 관련하여」『嶺南考古學』 17
- _____, 2002, 「弁·辰韓 土器의 形成과 展開」『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11
- _____, 2003, 「弁·辰韓社會의 考古學的 研究」, 부산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 _____, 2004, 「古代 南東海岸地域의 墓制樣相 - 木槨墓에서 石槨墓까지 -」『古代의 南東海岸國家形成』, 부산북천박물관
- 李柱憲, 1994, 「三韓의 木槨墓에 대하여」『古文化』 44, 韓國大學博物館協會
- 林孝澤, 1992, 『金海 良東里古墳群 發掘調査 概報』 제35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요지
- _____, 1993, 『洛東江下流域 伽耶의 土壙木槨墓 研究』 한양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 曹秀鉉, 2005, 「弁辰韓地域 木槨墓에 대한 一考察」『科技考古研究』 11
- 정 민, 2008, 「경산 신대리유적 목관묘」『무덤연구의 새로운 시각』 제51회 전국역사학대회 고고학부 발표자료집
- 진수정, 1998, 「대구 팔달동유적 목관묘에 대하여」『제9회 조사연구발표회』,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 진성섭, 2002, 「대구 팔달동유적」『세형동검문화의 제문제』 영남·구주고고학회 제5회 합동고고학대회 발표요지
- 崔鐘圭, 1983, 「慶州市 朝陽洞遺蹟 發掘調査概要とその成果」『古代文化』 3 5-8
- _____, 1991, 「무덤에서 본 三韓社會의 構造 및 特徵」『韓國古代史論叢』 2, 駕洛國事蹟開發研究院
- _____, 1995, 『三韓考古學研究』, 書景文化社
- 한병삼, 1980, 「경주 조양동고분 발굴의 의의」『한국고고학보』 7
- 洪潛植, 2000, 「考古學으로 본 金官加耶」『考古學을 통해 본 加耶』 韓國考古學會
- 한국상고사학회, 2006, 『사로국시기의 경주 무덤과 지역집단』 제34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 진한지역 발굴보고서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5, 『성주 백전 예산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문화유적발굴 조사보고서』

경주박물관학예연구실, 1979, 「경주 조양동고분발굴보고」 『박물관신문』 제98호

경주박물관, 2007, 『영천 용전리 유적』

國立慶州博物館, 2003, 『慶州 朝陽洞 遺蹟 II』 國立慶州博物館 學術調查報告 第13冊

영남대학교박물관, 1998, 『경산 임당지역 고분군 III - 조영 1B지역-』

영남문화재연구원, 1999, 『경산 임당동유적 I - F, H지구 및 토성 -』

_____, 2001, 『경산 임당동유적 III · IV』

_____, 2001, 『경주 사라리유적II - 목관묘, 주거지-』

_____, 2000, 『대구 팔달동유적 I』

최종규, 1979, 「경주 조양동고분군 2차조사 발굴개보」 『박물관신문』 제100호

_____, 1982, 「조양동 토광묘군 4차발굴」 『박물관신문』 제126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경주시, 2003, 『경주 황성동유적 I - 강변로 개설구간 발굴조사 보고서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8, 『경산 임당유적 I~V』

□ 변한지역 발굴보고서

慶南考古學研究所, 2002, 『道項里 · 末山里 遺蹟』

慶星大學校博物館, 2000, 『金海 龜旨路墳墓群』

_____, 2000, 『金海 大成洞古墳群 I』

_____, 2000, 『金海 大成洞古墳群 II』

_____, 2003, 『金海 大成洞古墳群 III』

國立文化財研究所, 1989, 『金海 良東里古墳群』

國立中央博物館, 1998, 『東萊 樂民洞貝塚』

_____, 2001, 『昌原 茶戶里遺蹟』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2006, 『金海 伽耶의 金 造成敷地內 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東義大學校博物館, 2000, 『金海 良東里古墳文化』

密陽大學校博物館, 2004, 『密陽 校洞遺蹟』

釜山大學校博物館, 1988, 『釜山 老圃洞遺蹟』

_____, 1989, 『勒島住居址』

_____, 1997, 『蔚山 下垵遺蹟-古墳 I』

_____, 1998, 『蔚山 下垵遺蹟-古墳 II』

_____, 1998, 『金海 鳳凰臺遺蹟』

□ 외국자료

郭亮, 「陝西地區腰坑葬俗研究」『東南文化』2007-5

樂豐實, 「史前棺槨的產生,發展和棺槨制度的形成」『文物』200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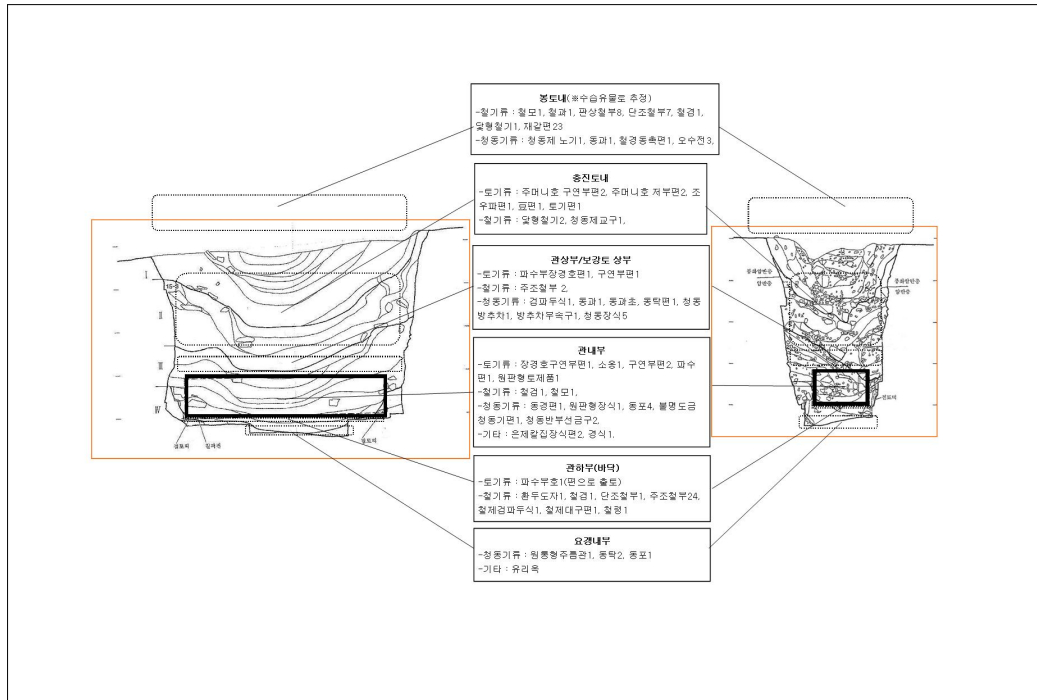
成都市文物考古工作隊·蒲江縣文物管理所, 「成都市蒲江縣船棺墓發掘簡報」『文物』2002-4

新疆文物考古研究所, 「新疆尉犁縣營盤墓地1995年發掘簡報」『文物』20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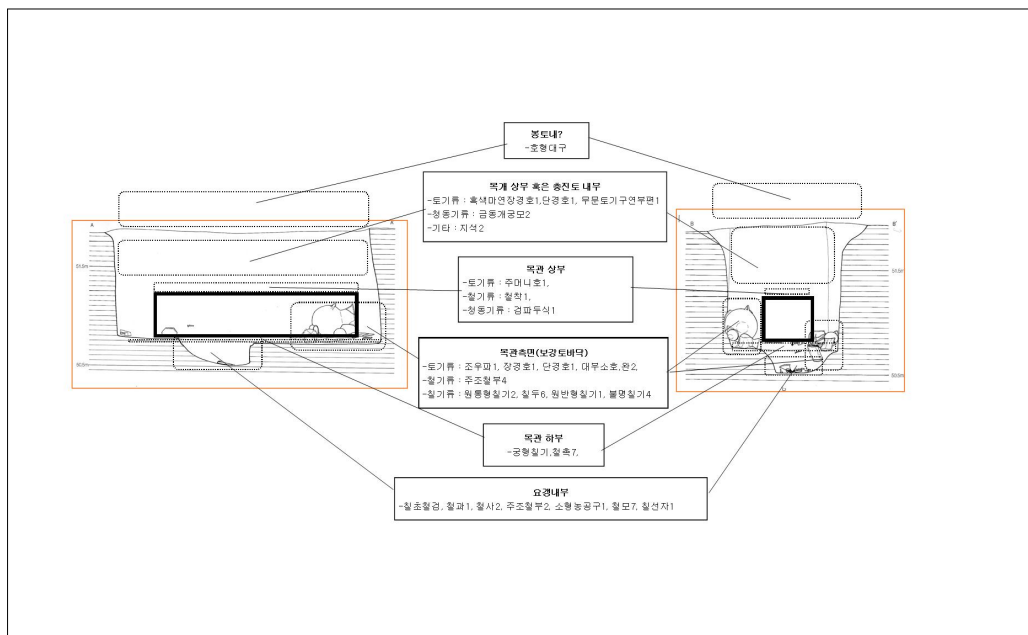
楊華, 「長江三峽地區古代腰坑葬俗的考古研究」『三峽大學學報』2005-1

吳春明, 「中國南方崖葬的類型學考察」『考古學報』19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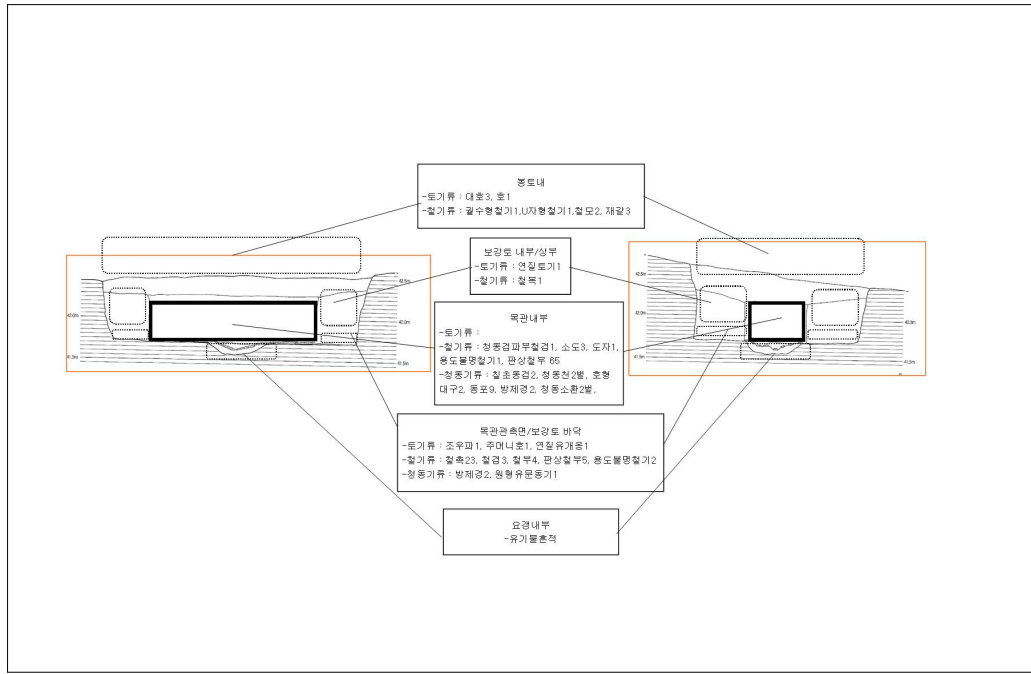
韓國河, 「論中國古代墳丘墓的產生與發展」『文博』19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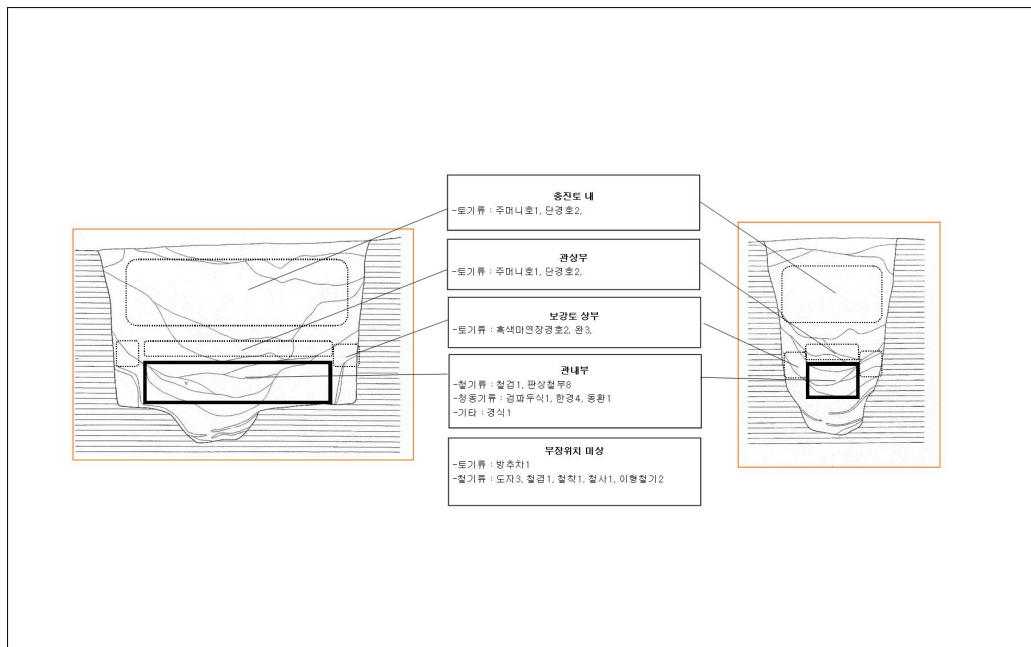
도면 1. 영천 용전리 목관묘 유물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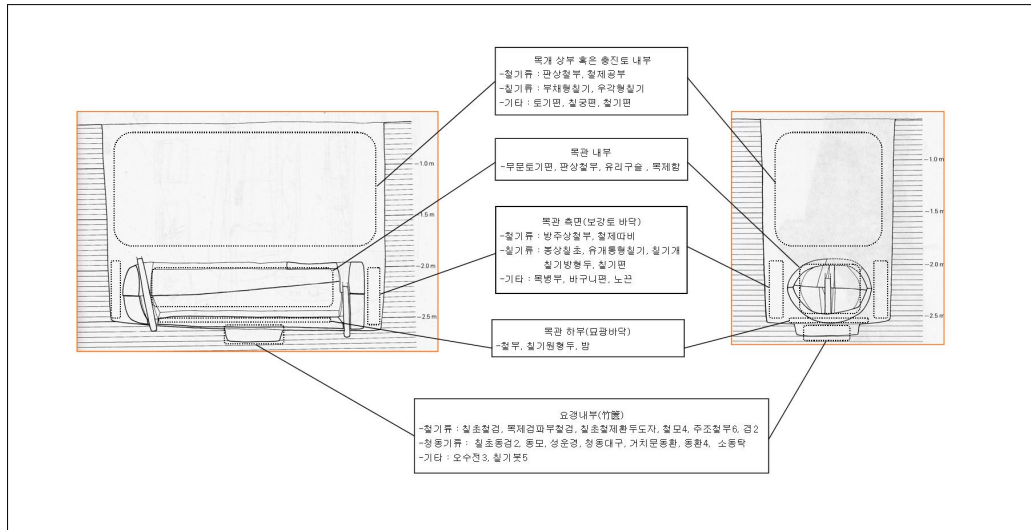
도면 2. 성주 예산리 목관묘 31호 유물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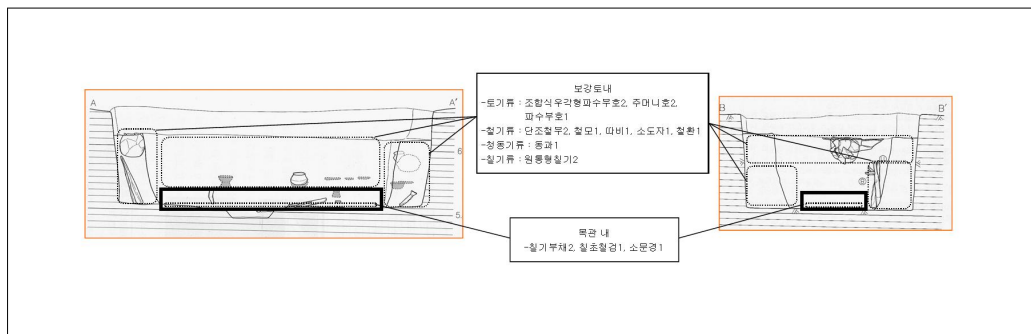
도면 3. 경주 사라리 목관묘 130호 유물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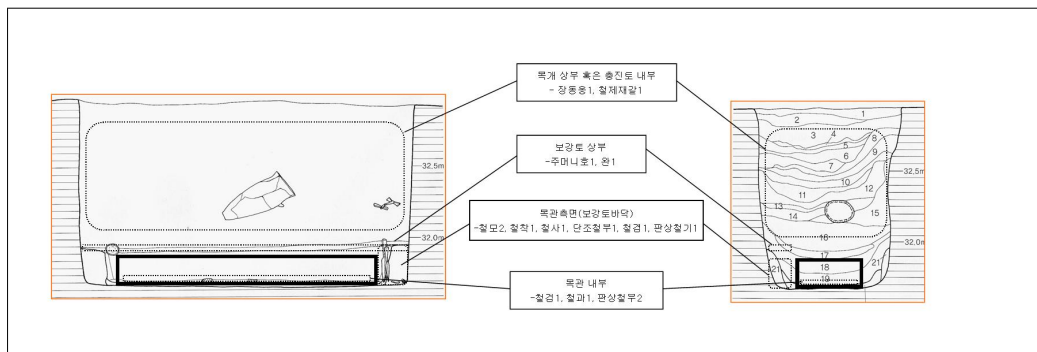
도면 4. 경주 조양동 목관묘 38호 유물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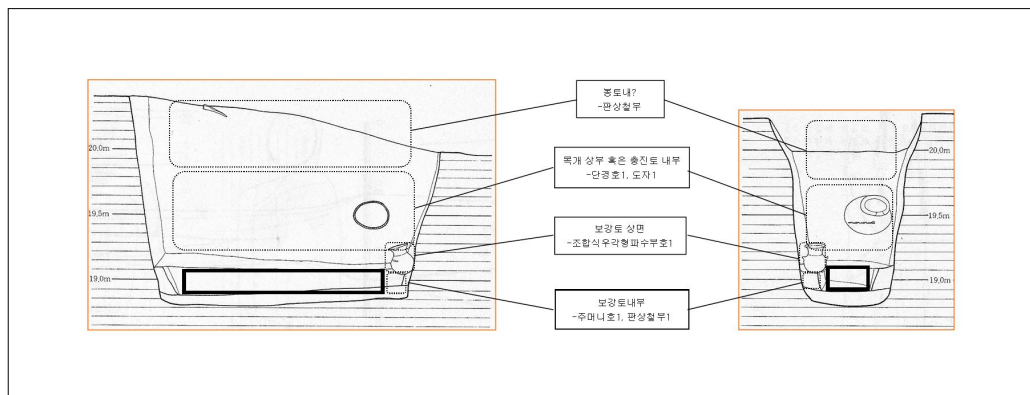
도면 5. 창원 다호리 목관묘 1호 유물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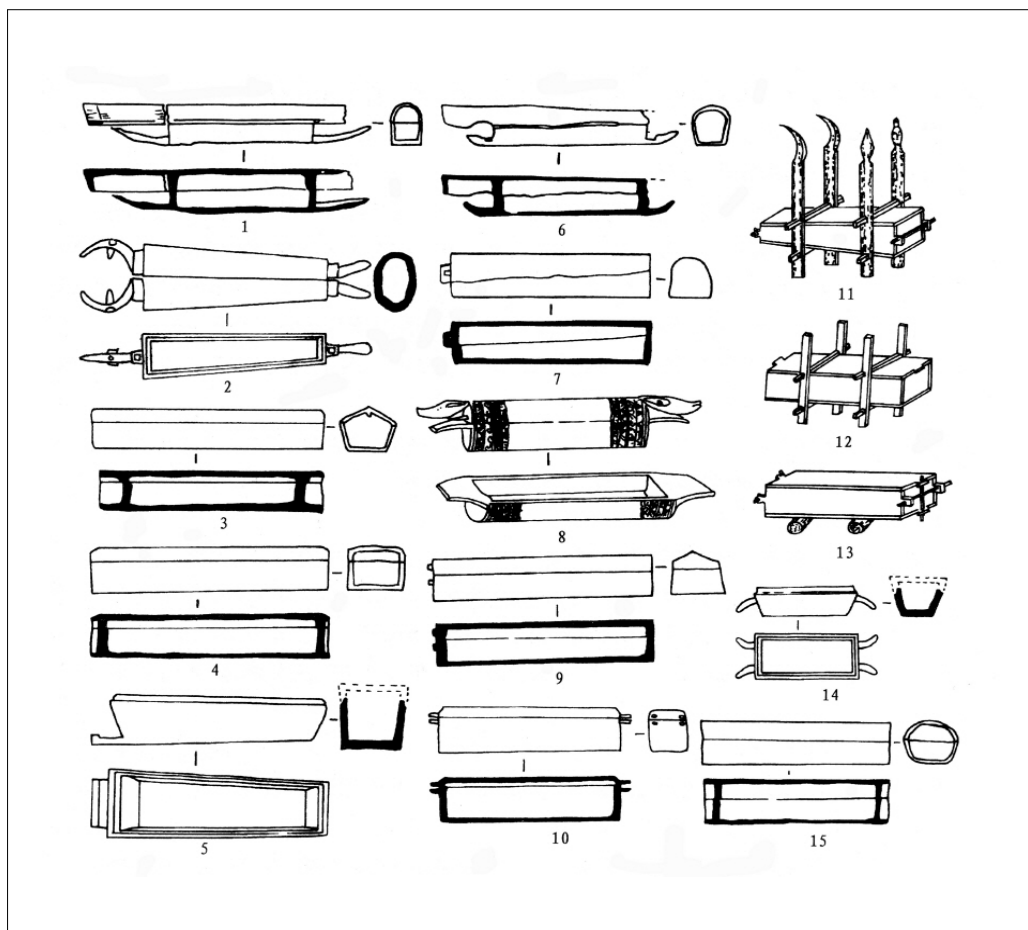
도면 6. 김해 가야의 숲 목관묘 3호 유물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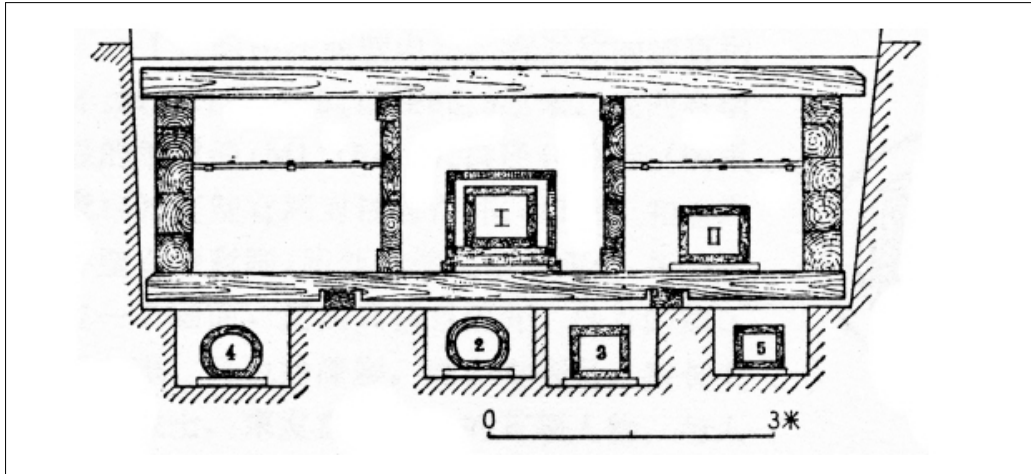
도면 7. 밀양 교동 목관묘 10호 유물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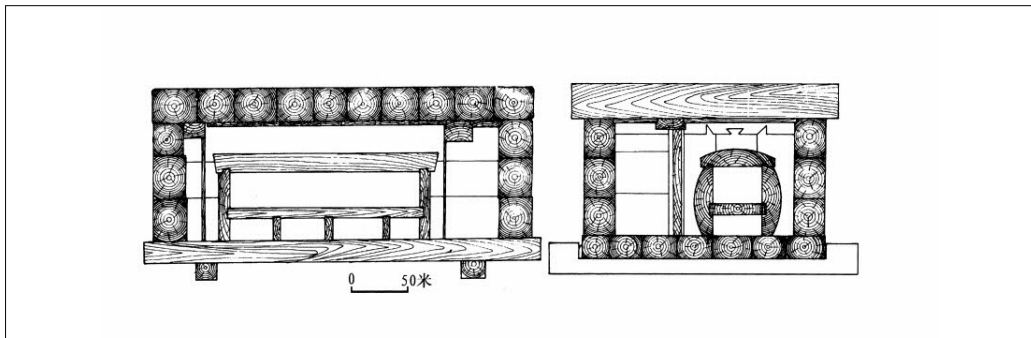
도면 8. 함안 도항리 목관묘 70호 유물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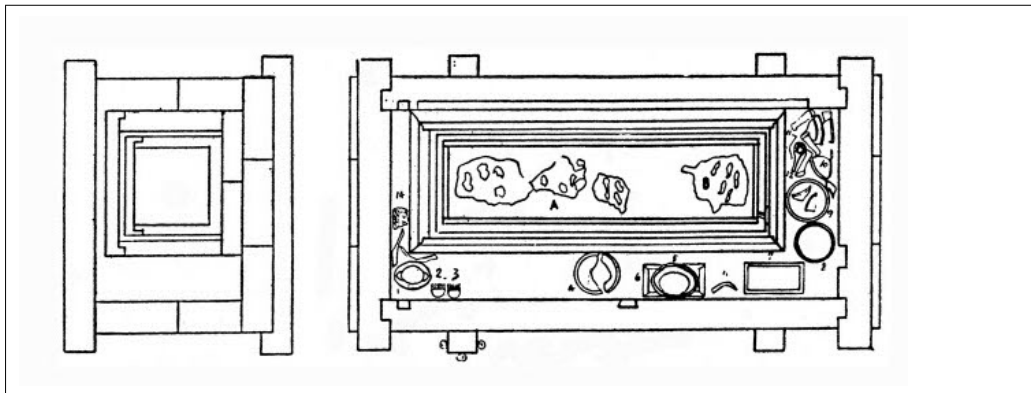
도면 9. 崖葬墓 木棺 各種形態(『考古學報』 1999-3 p.319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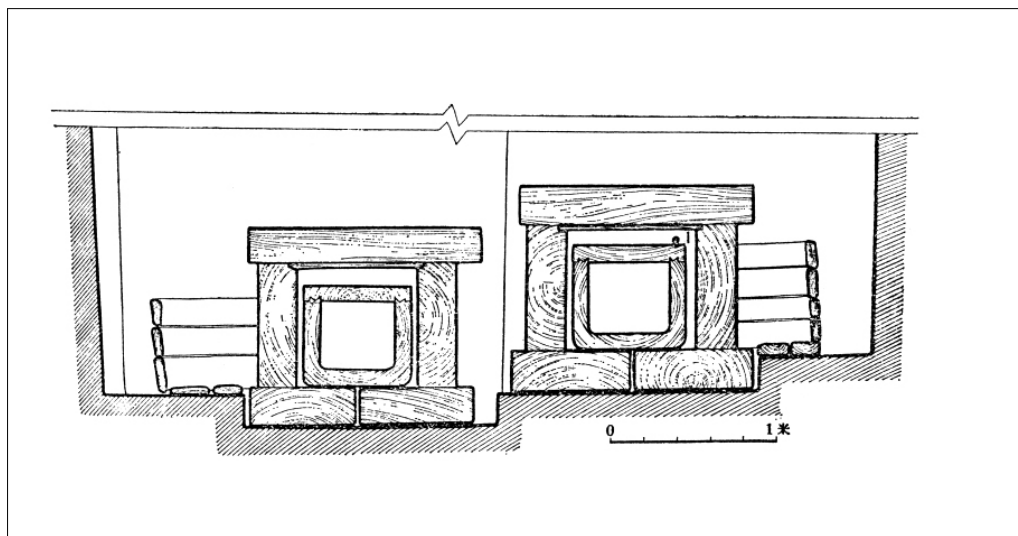
도면 10. 廣西省 貴縣 木槨墓 內棺 斷面圖(『文物』 78-9 p.26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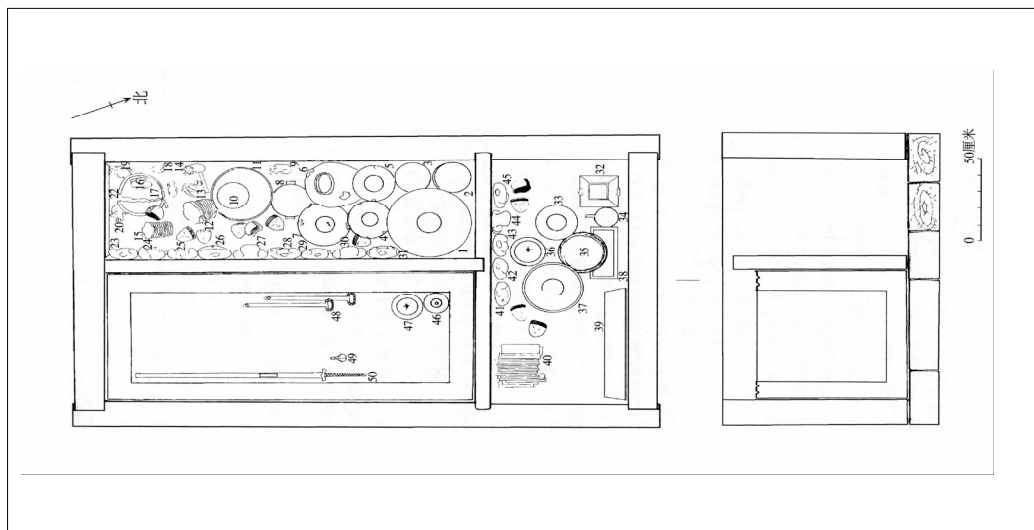
도면 11. 湖北省 黃州縣 木槨墓 斷面圖(『考古學報』 2001-2 p.233 인용)



도면 12. 湖南省 長沙市 黃泥坑 20號 斷面圖(『文物』 56-11 p.37 인용)



도면 13. 江蘇省 連云港市 木槨墓 斷面圖 (『考古』 75-3 p.170 인용)



도면 14. 安徽省 天長市 木槨墓 斷面圖 (『文物』 2006-11 p.5 인용)